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19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 매일미사 책 69쪽 참조.

■ 성모 승천 대축일  
- 일시 : 8/15(화) 오전 11:00  
※ '성모 승천 대축일'은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께서 신앙의 힘으로 하늘로 오르심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8/14(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8/15(화): 성모 승천 대축일.

■ 2017년 본당 야외미사  
- 일시 : 9/3(주일) 오전 11:00.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Lenexa, KS 66219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위원 임명 예고  
- 일시 : 8/13(주일) 예정.  
- 대상 : (총무)김대연 요셉,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선교)박태주 로마노, (구역)이영민 엘리사벳.

■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파 견
33	340	502	2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정예찬 미카엘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 주	김대연 요셉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주	김수연, 최선윤
성모승천대축일	행사 2조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영진 라파엘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8/6	62명	381달러	1,990달러
강영진, 김대연, 문석찬, 한봉경 (총 4세대)			

연중 제 19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8월 13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호수에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과 역사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 뵙고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 그림 묵상

#### 폭풍 속의 강한 손 (Stonghold)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 14,31).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마태 14,33).

그림: 지거 괴더 신부 (Fr. Sieger Köder)

제 1 독서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9ㄱ.11-13ㄱ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 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9,1-5  
<내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2-33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느님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 놓은 단과 베텔에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시돈 임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기가까지 합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함으로써 그 이전의 그 어떤 임금보다도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습니다.(1열왕 17,29-34) 또한 이세벨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기까지 하였습니다.(1열왕 18,4)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분노하시어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에는 삼 년 동안 이슬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삼 년이 지난 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러한 불행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이 아합 임금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1열왕 18,16-19) 그리고는 카르멜 산에서 바알과 하느님 가운데 누가 진정한 주님인지 가리자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의 불길 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삼켜 버리며 하느님이야말로 진정 주님이심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에는 전과 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그곳을 떠나 브에르 세바로 도망가서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엘리야를 다독이시며 그를 당신의 산 호렙, 곧 시나이산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왜 이렇게 죽음까지 맞아야 하는지 하느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느님의 예언자로 일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해야 하는데 혼자 남아 목숨마저 위태로워진 자신의 처지를 비판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크고 강력한 바람의 모습도, 지진의 모습도, 불같은 모습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그에게 나타나시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엘리야를

위해 직접 나서시어, 모든 일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1열왕 19,18)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당신 일을 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곤 합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의 외침처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시편 130,5)라고 노래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종종 주님의 현존을 의심하곤 합니다. 이는 오늘 복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저어가다가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지자 그들은 오히려 혼비백산합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로 걱정하며 예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권고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의심하다가 물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님께서서는 조용히 배 위에 오르시면서 풍랑을 멈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제자들처럼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의심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서는 커다란 바람도, 커다란 불도, 커다란 힘도 아니라, 정말 실바람 같은 잔잔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시어 우리 곁에 머물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용기를 내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맞이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며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셨던 성모님을 본받는 참된 성모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



# 제의의 색

오늘 신부님이 미사 때 녹색 제의를 입으셨지요. 그럼 지난 주일에 입으신 제의의 색깔은? 벌써 가을가물 하시다고요? 잘 떠올려보세요. 정답은? 흰색!

미사 때 사제의 제의 색이 달라지는 이유는 전례 시기나 미사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양한 색의 제의는 전례의 특성이나 전례 시기별 지향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지요. 빛이신 예수님의 색이라 할 흰색은 지난주 기념한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탄과 부활 대축일, 성체 성혈 대축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등 거의 모든 주님의 대축일에 영광, 순결, 기쁨을 뜻하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또 성탄과 부활 시기, 성모 축일, 천사 축일,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도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붉은색은 주님의 열정적 사랑과 피를 상징하기에 주님 수난 성지 주일과 성금요일, 그 밖의 주님 수난 관련 일에 입습니다. 붉은색은 성령의 색이자 신앙을 증명한 순교자들의 색이기도 하여 성령 강림 대축일과 순교자 축일에도 붉은색 제의를 입습니다. 일 년 중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녹색은 생명의 희열과 희망의 색입니다. 녹색은 전례력에서 ‘일상’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기념일, 축일, 대축일이 아닌 연중 시기에 사제는 희망과 깨어있음을 뜻하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는 보라색은 준비 또는 다른 차원으로 건너감을 뜻하기에 주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입습니다. 성탄이나 부활 대축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자는 의미겠지요. 장례 예식 때 보

라색 제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부활의 삶을 위해서는 죽음 또한 건너가야 할 순간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므로 장례 미사, 위령 미사 때 입습니다. 요즘은 대개 검은색 대신 흰색 제의를 입는데, 위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장미색 제의는 대림 3주일과 사순 4주일에 입습니다. 이제 곧 기쁜 때가 온다는 희망을 전해 주기 위해서지요. 마지막으로 금색 제의는 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때 입는데 흰색, 붉은색, 녹색을 입는 전례시기에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제의 제의 색만 보아도 그날 전례의 성격을 알 수 있으니 그에 합당한 마음 준비를 하면 좋겠지요.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 두려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하느님을 찾게 되는  
믿음의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부르지만 한다면.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마태 14,30)

